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신성만(한동대 심리학과 교수)

이다슬, 김예인(한동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와 교회에서는 동성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자 입장에 따라 찬성,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송덕영, 2017). 친동성애 그룹은 ‘문화’와 ‘성소수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오성중, 2017).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이경직, 2017),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의 측면에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다양한 성적 행동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신성욱, 2017). 실제로 2007년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송덕영, 2017), 특히 2012년부터 이후 계속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동성애에 반대를 표시하는 교회들에 대해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으며(국민일보, 2017), 일반 대중들도 교회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2017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해 물었을 때 20대에서만 찬성이 66%였고, 30대와 40대는 오히려 반대가 각각 52%, 54%로 나타나 세대 간의 인식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재영(2013)이 1,000명의 20~30대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성 의식 및 성 경험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3%, 실제로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청년도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모습을 보임을 의미하고,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정재영, 2013)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동성애를 포함하여 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적지향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양성 등 다양한 성을 가리키는데 개념이 모호하여 학자마다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성애자가 아닌 경우, 보통 LGBT라는 약어로 분류하여 표현했으나 이후 LGBTQ 또는 LGBTQIA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성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에 따라 14글자인 LGGBTTQQAAPP를 사용하였다(Collegiate Times, 2014). LGGBTTQQAAPP는 Lesbian, Gay, Genderqueer¹⁾, Bisexual, Bigender²⁾, Transgender, Trans, Queer³⁾, Questioning⁴⁾, Intersex⁵⁾, Asexual⁶⁾, Agender⁷⁾, Pansexual and Polyamory⁸⁾를 의미한다. Collegiate Times(2014)의 칼

- 1)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
- 2) 자신이 여성과 남성 젠더 정체성 사이에 속하거나 행동한다고 여기는 사람
- 3) 이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사람
- 4)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의문을 가진 사람
- 5) 제3의 성: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 6) 무성애자
- 7) 무성애자
- 8) 범성애와 다자연애

럼니스트 Julia Lattimer는 14글자 안에 여전히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괄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모든 성별과 성적소수자를 나타내는 약어인 GSM(Gender and Sexual Minorities)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어떤 이들은 GSM보다 GSD(Gender and Sexual Diversity)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Pink News, 2013). 이렇게 다양한 성을 의미하지만, 주로 동성 간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학자들은 성적지향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한다(Bailey et al., 2016).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 선호(sexual preference)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친동성애 그룹은 성 선호보다 성적지향의 용어를 지향한다. ‘선호’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동성애자가 된 것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The Slate, 2013).

Laumann(1994)은 성적지향을 행동(behavior), 욕구(desire), 정체성(identity) 3가지 요소인 세 가지 요인 모델(The three-factor model)로 정의하였다(Okami, 2014; Laumann, 1994). 먼저 행동적 측면에서는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의 성을 뜻하고, 욕구적 측면에서는 성행위를 한다고 상상했을 때 기대되는 사람의 성을 나타낸다. 정체성(identity)은 동성애자, 이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와 같은 자기의 성적 결정에 적용하기로 선택한 성을 나타낸다. 3가지 요소로 구분할 경우, 행동에 있어서는 동성애자일 수 있지만 욕구와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성애자일 수 있으며 특히, 욕구는 다른 요소들보다 대부분의 성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엔진 역할을 하는데 이를 욕구 주도 모델(The desire-driven model)이라고 부른다(Okami, 2014).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이성애자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지향의 패턴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유동적임을 나타낸다.

성적 유동성(Sexual Fluidity)

Lippa(2007)가 53개 국가의 200,000명이 넘는 참가자의 성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성적지향 패턴이 더 다양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kami, 2014). 또한, 16~23세사이의 80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Diamond(2009)의 종단연구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 유동성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Bailey et al, 2016; Diamond, 2009). Mayer과 McHugh(2016)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지향에 대해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동성애에게 성적매력을 느낀다고 한 남성 청소년의 80%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함으로써 성적지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사람의 인생 동안 꽤 유동적임을 결론지었다(Mayer & McHugh, 2016). 이러한 유동성은 성적지향성이 유전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일란성 쌍둥이(Monozygotic Twins) 연구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 증거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길원평, 도명술, 이명진 외, 2017). 실제로, Langstrom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일란성 쌍둥이 7,652명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은 9.9%, 여성은 12.1%로 보고되었다. 이전 Bailey 등(2000)의 연구에서도 10% 내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일치 비율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성적지향이 유동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어냈으며, 타고난 것이 아닌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기 때문에 성적지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사실로 알고 있거나(길원평, 2017)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하고 있다(국민일보, 2017).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관련 인식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동성애 인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의식, 성 윤리, 성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에 비해(김병림, 2009; 김호진, 2015; 윤성현, 2016; 채은정, 2010; 함익영, 2007 등)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

로 한 성 의식 조사나 동성애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는 미비한 편이다. 대상이 청년인 경우, 이성 교제 현황 및 결혼관을 조사한 임연미(2004)의 연구나 신앙과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이명조(2003)의 연구와 같이 결혼에 초점을 맞춘 주제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성 윤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조연옥(2003)의 연구가 있었다. 조연옥(2003)의 실태조사에서 약 80% 정도의 청년들이 스스로 기독교 성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성교육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교회가 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이영주, 2017). 이전보다 더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 속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를 접할 때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한국 기독 청년들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지역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남녀 청년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8년 4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각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의 협조를 받아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A교회, 인천광역시의 B교회, 경기도의 C교회, 대전광역시의 D교회, 경상북도의 E교회 청년부에 총 179부의 설문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조사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176부의 설문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15-19	8(4.5)	출석교회	A교회	54(30.7)
	20-24	62(35.2)		B교회	38(21.6)
	25-29	64(36.4)		C교회	22(12.5)
	30-34	26(14.8)		D교회	52(29.5)
	35-39	11(6.3)		E교회	10(5.7)
	40-44	2(1.1)	성별	남성	80(45.5)
	무응답	3(1.7)		여성	96(54.5)

본 조사에 참가한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4.5%(96명), 남성이 45.5%(80명)로 여성 청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세가 최저, 41세가 최대였으며, 20대가 71.6%이었다. 교회에 따른 인원은 평균 35.20명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19.06으로 집계되어, 교회 집단별 표본 수의 차이가 다소 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규모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각각 연구 대상자 전체의 약 30%를 구성하는 A교회와 D교회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재적 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였으며, B, C교회는 약 200~300명의 인원이 등록된 중소형 교회였으며, E교회의 경우 10명 내외의 청년이 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되는 소형 교회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신앙생활 관련 사항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신앙생활 기간	모태신앙	94(53.4)	신앙생활 동기	지적 호기심	2(1.1)
	10년 이상	40(22.7)		인격 수양	3(1.7)
	6-9년	15(8.5)		신도 간 교제	7(4.0)
	2-5년	18(10.2)		부모의 영향	26(14.8)
	6개월-1년	6(3.4)		개인 영적 이유	133(75.6)
	6개월 미만	3(1.7)		미응답	5(2.8)
총 계		176(100.0)	총 계		176(100.0)

위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태신앙’이 전체 대상자의 53.4%로 연구대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신앙생활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개인의 영적 이유’가 133명(75.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영적 필요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더하여 94명의 신앙생활 동기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적인 이유가 72.3%(68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 부모의 영향 20.2%(19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 일반사항, 신앙생활 충실도, 동성애 죄 인식, 교회에서의 동성애 접촉, 교회의 동성애 이슈에 대한 반응과 태도, 동성애 접촉 매체, 동성애에 대한 태도, 성 의식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과 문항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내용 및 문항 수

구성	내용	문항 수
대상자 일반사항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신앙생활 관련 사항	5
신앙생활 충실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와 구제, 친교, 봉헌	7
동성애 죄 인식	죄 인식, 태도 변화 유무 및 계기	4
교회에서의 동성애 접촉	성경, 교회 주관 모임, 성도와의 토론	3
교회의 동성애 태도	정치적 법적 관심, 죄 인식 적극성, 교회의 동성애 태도에 대한 만족도	3
동성애 접촉	동성애 관련 정보 출처, 동성애자 지인 여부, 동성 애정 표현 경험 여부	4
동성애에 대한 태도	인지적 차원	3
	감정적 차원	2
성 의식	성에 대한 기본 의식	3
	이성 교제	3
	혼전 성관계	3
총 문항 수		40

(1) 성 의식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년의 성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함의영(2007)이 이경숙(2006)의 설문지를 토대로 재구성한 성의식 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에 대한 기본의식, 이성교제, 혼전성관계의 세 하위요인에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성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애정 없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를 높게 책정할수록 기본적인 성 의식이 다소 폐쇄적이며, 이성교제 중 성관계나 혼전성관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이경숙(2006)의 연구에서 .72, 함의영(2007)의 연구에서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다.

(2) 동성에 관련 문항

동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박수진(2004)의 청소년 동성에 태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동성에 대한 태도, 동성에 관련 정보 출처, 동성애자 지인 및 접촉 경험 유무 등을 묻는 문항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추가하였다.

(3) 교회 맥락에서의 동성에 관련 문항

동성에 이슈에 대해 교회 차원에서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출석교회의 동성에 이슈 관련 관심도, 적극도, 신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또 이러한 교회 맥락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의 동성애 죄 인식 정도, 교회 맥락에서 공동체, 성경 등을 통한 동성애 관련 내용 노출 경험 등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4) 신앙생활 충실도

신앙생활 충실도 관련 문항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고순자(2012)의 신앙생활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기독교 신앙활동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하위 요인은 기독교의 교회 공식 및 비공식적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배 참여, 개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와 구제활동, 친교활동, 봉헌에 대한 내용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활동의 특성에 따라 충실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9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신앙생활 요소 성 의식 및 동성애 인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대, 교회에 따른 동성애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과 성 의식에 있어서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연령대, 교회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비모수적 ANOVA 검정인 Kruskal-Wallis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성애 인식 실태

(1) 대상자의 동성애 내용 접촉 매체

<표 4> 연구대상의 동성애 내용 접촉 매체

단위: 빈도(%)

항목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	주로 접하는 매체 3가지(다중)
TV	56(31.8)	137(27.2)
인터넷	41(23.3)	132(26.2)
영화	9(5.1)	108(21.4)
서적	12(6.8)	41(8.1)
또래집단	17(9.7)	40(7.9)
교회	16(9.1)	28(5.6)
학교 성교육	8(4.5)	11(2.2)
기타	11(6.3)	3(0.6)
무응답	6(3.4)	4(0.8)
총 계	176(100.0)	504(100.0)

대상자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로 ‘TV’(31.8%)와 ‘인터넷’(2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성애 관련 내용을 주로 접하고 있는 매체의 경우를 물었을 때 ‘TV’(27.2%)와 ‘인터넷’(26.2%), ‘영화’(21.4%)와 같은 미디어에 상당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교회’를 통해 처음 동성애를 접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은 9.1%(16명)였고, 주로 접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교회’라고 응답한 사람은 5.6%에 그쳤다.

(2) 대상자의 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

<표 5> 연구대상의 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관련 내용 접한 경험

문항	구분	빈도(%)	총 계
성경에서	있다	126(71.6)	176(100.0)
	없다	50(28.4)	
성도와의 토론	있다	99(56.2)	176(100.0)
	없다	77(43.8)	
교회 주관 모임에서	여러 번 있었다	90(51.1)	176(100.0)
	한두 번 있었다	65(36.9)	
	전혀 없었다	21(11.9)	

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이 ‘성경’(71.6%)과 ‘교회 주관 모임’(88.0%)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도와의 토론’을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56.2%였다.

(3)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태도

① 인지적 차원

동성애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성적 접촉을 원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14명(6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에게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 46명(26.1%), ‘동성과 성

경험이 있거나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에 16명(9.1%)이 응답하였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가를 묻은 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성애를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매우 동의한다' 92명(52.3%), '동의한다' 51명(29.0%)). 한편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11명)이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에 5.1%(9명), '보통이다'에 4.5%(8명)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한국 전체 인구의 동성애자 비율에 대해 물었을 때, 실제 국내 동성애자의 비율로 추정되는 약 2% 미만(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보다 훨씬 많은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가장 높은 응답률(34.7%, 61명)을 보였다. 한편 '5% 정도'가 47명(26.7%), '2-3% 정도'가 49명(27.8%), '1% 미만'이 18명(1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 감정적 차원

자신이 동성애를 경험한다는 가정 하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의 응답률은 '신앙 관련 문제' 49.1%(80명),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29.4%(48명), '기타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감염' 10.4%(17명), '자책감' 7.4%(12명),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10명(6.3%)의 응답자가 '스스로 동성애자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 중 여자가 7명(20대 4명, 30대 3명), 남자가 4명(20대 4명)이었다. 고민을 하게 된 이유로는 '동성 친구에게 묘한 느낌과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가 45.5%(5명)이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동성친구에게만 관심이 가고 감정이 끌려서(여자),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시기에 아주 잠깐 호기심 어린 생각으로(남자),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여자) 등이 있었다.

(4) 대상자의 동성애 수용도

<표 6> 연구대상의 동성애 수용도

항목		빈도(%)	
비수용적	전적으로 수용적이지 않다	111(63.1)	142(80.7)
	다소 수용적이지 않은 편이다	31(17.6)	
수용적	어느 정도 수용적인 편이다	21(11.9)	23(13.0)
	전적으로 수용한다	2(1.1)	
모르겠다		11(6.3)	
총 계		176(100.0)	

대상자의 80.7%가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13.0%(23명)은 수용적이었다. 11명(6.3%)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7> 연구대상의 동성애 수용도별 이유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문항 내	전체
비수용적	동성애는 죄이다	104(73.2)	142(80.7)
	특별한 이유 없이 반감이 생긴다	12(8.5)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11(7.8)	
	기타	9(6.3)	
	무응답	6(4.2)	
수용적	본인들만 원한다면 상관없다	6(26.1)	23(13.0)
	나름의 생활방식이므로 그들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5(21.7)	
	선천적인 원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	3(13.1)	
	기타	9(39.1)	
	모르겠다	-	11(6.3)
	총 계	-	176(100.0)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이라고 응답한 142명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73.2%)이 ‘죄이기 때문에’ 비수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적극적인 재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 ‘뭘 하건 관심이 없다’, ‘소통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수용적인 대상자 23명 중에는 동성애를 ‘본인들만 원한다면 상관없고’(26.1%), ‘나름의 생활방식’(21.7%)이며, ‘선천적인 원인’(13.1%)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수용적인 응답자의 다른 의견으로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할 수 있다’, ‘도와줘야 한다’ 등이 있었다.

(5)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

<표 8>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하게 된 계기

단위: 빈도(%)

항목	1순위	3가지(다중)
교회 교육	13(41.9)	22(24.2)
TV, 영화 등 미디어	6(19.4)	20(22.2)
인터넷	6(19.4)	18(19.8)
포래집단	2(6.5)	9(9.9)
서적	1(3.2)	9(9.9)
부모	1(3.2)	5(5.5)
학교 성교육	2(1.1)	3(3.3)
기타	0(0.0)	2(1.1)
총 계	31(100.0)	93(100.0)

대상자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대상자 31명 중 41.9%가 교회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동의로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3가지를 다중으로 살펴보면, 교회교육의 역할이 24.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영화 등의 미디어와 인터넷의 영향은 각각 22.2%와 19.8%로 보고되었다.

<표 9>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하게 된 계기

단위: 빈도(%)

항목	1순위	3가지(다중)
인터넷	0(0.0)	4(26.7)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	1(20.0)	3(20.0)
TV, 영화 등 미디어	2(40.0)	3(20.2)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위 사람들	0(0.0)	2(13.3)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	1(20.0)	1(6.7)
성경에 대한 의심	1(20.0)	1(6.7)
서적	0(0.0)	1(6.7)
총 계	5(100.0)	15(100.0)

대상자 중 5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태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체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 2명(40.0%)의 응답자가 ‘TV, 영화 등의 미디어’를 주요인으로 꼽았고, 나머지 3명은 각각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 ‘성경에 대한 의심’이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세 가지를 고른 것을 다중문항 분석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26.7%)과 미디어(20.2%)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20.0%)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위 사람들(13.3%)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기독 청년의 교회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교회별 동성애 이슈에 대한 적극성

<표 10> 출석교회는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가에 대한 교회별 응답

단위: 빈도(%)

항목	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매우 그렇다	49(90.7)	16(42.1)	1(4.5)	11(21.2)	5(60.0)
약간 그렇다	3(5.6)	14(36.8)	8(35.4)	18(34.6)	2(20.0)
보통이다	2(3.7)	6(15.8)	7(31.8)	14(26.9)	1(1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0(0.0)	1(2.6)	6(27.3)	6(11.5)	1(10.0)
전혀 그렇지 않다	0(0.0)	1(2.6)	0(0.0)	3(5.8)	0(0.0)
총 계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표 11> 출석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대응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교회별 응답

단위: 빈도(%)

항목	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매우 만족한다	49(90.7)	6(15.8)	3(13.6)	6(11.5)	2(20.0)
대체로 만족한다	7(13.0)	15(38.5)	5(22.7)	10(19.2)	1(10.0)
보통이다	7(13.0)	16(42.1)	7(31.8)	29(55.8)	7(70.0)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0(0.0)	1(2.6)	7(31.8)	7(13.5)	0(0.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9)	0(0.0)	0(0.0)	0(0.0)	0(0.0)
총 계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표 12> 교회별 동성애 죄 인식 적극성과 대응 만족도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단위: MEAN±SD

문항	교회					$\chi^2(p)$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교회 죄 인식 적극성	4.87±.44	4.13±.96	3.18±.91	3.54±1.13	4.30±1.06	69.08* ** (.000)
교회 대응 만족도	4.54±.86	3.68±.78	3.18±1.05	3.29±.85	3.50±.85	53.20* ** (.000)

위의 <표 10>는 교회가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지를 교회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 교회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chi^2=69.081$, $p=.000$), A교회, E교회, B교회, D교회, C교회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해당 교회에 출석 중인 신도로서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만족하는지를 물었을 때, 다섯 교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53.20$, $p=.000$). 대응 적극성이 가장 높았던 A교회가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대응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1위였으며, 그다음 B교회, E교회, D교회, C교회 순으로 높았다(<표 12> 참고).

위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신도의 평가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에 대한 교회별 교차분석

단위: 빈도(%)

문항	구분	교회					$\chi^2(p)$
		A교회 (N=54)	B교회 (N=38)	C교회 (N=22)	D교회 (N=52)	E교회 (N=10)	
성경	있다	47(87.0)	21(55.3)	19(86.4)	31(59.6)	8(80.0)	17.69** * (.001)
	없다	7(13.0)	17(44.7)	3(13.6)	21(40.4)	2(20.0)	
성도와의 토론	있다	37(68.5)	18(47.4)	16(72.7)	21(40.4)	7(70.0)	13.04* (.011)
	없다	17(31.5)	20(52.6)	6(27.3)	31(59.6)	3(30.0)	
교회 주관 모임	여러 번 있었다	43(79.6)	12(31.6)	12(54.5)	15(28.8)	8(80.0)	43.66** * (.000)
	한두 번 있었다	10(18.5)	18(47.4)	10(45.5)	25(48.1)	2(20.0)	
	전혀 없었다	1(1.9)	8(21.1)	0(0.0)	12(23.1)	0(0.0)	

<표 13>은 앞서 살펴본 성경, 성도와의 토론, 교회 주관 모임에서 동성에 관련 내용 접촉 여부의 비율을 교회 집단 간 비교 검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교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 높은 적극성을 보이면서 교회의 대응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가 높았던 A교회는 성경(87.0%), 성도와의 토론(68.5%), 교회 주관의 모임(98.1%)에서 동성에 관련 내용을 접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도 높았다.

교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높은 적극성과 만족도를 보였던 B교회를 살펴보면, 성경을 통한 동성에 내용 접촉 경험 있음(55.3%)과 없음(44.7%)의 차이는 미미했으며, 성도와의 토론의 경우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은 52.6%였다. B교회의 전반적인 비율이 동성에 이슈에 대한 적극성과 만족도가 다소 낮은 D교회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적극성과 만족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던 C교회의 경우 성경을 통해 동성에 내용을 접해보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6.4%였으며, 동성에 이슈에 관한 성도와의 토론을 경험한 응답자가 72.7%로 집단 간 가장 높았다.

즉 교회 차원의 대응 적극성이나 교회 주관의 모임과 그에 따른 성도의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지라도, 성경에서 동성에 관련 내용을 읽어보았는지, 성도와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지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 차이가 교회 간의 차이와 변별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2) 교회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표 14> 교회별 신앙생활 충실도와 성 의식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단위: MEAN±SD

문항	교회					$\chi^2(p)$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신앙생활 충실도	23.38±6.60	18.84±5.71	21.76±4.82	18.27±4.40	20.50±4.40	24.60** * (.000)
성 의식	15.53±4.70	21.26±5.43	17.48±3.82	19.61±4.83	18.80±5.47	31.90** * (.000)

신앙생활 충실도에서 교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4.60$, $p=.000$). 신앙생활도는 A교회, C교회, E교회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B교회, D교회가 가장 낮았다.

이성교제 성관계 또는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태도를 평정하는 성 의식 역시 교회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31.90$, $p=.000$). 분석 결과 다섯 교회 중 B교회와 D교회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으며, C교회와 A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었다.

(3) 교회별 동성애 죄 인식

<표 15>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교회별 응답

단위: 빈도(%)

항목	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전적으로 동의한다	49(90.7)	18(47.4)	18(81.8)	29(55.8)	6(60.0)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4(7.4)	8(21.1)	3(13.6)	11(21.2)	4(40.0)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0(0.0)	4(10.5)	0(0.0)	5(9.6)	0(0.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1.9)	5(13.2)	1(4.5)	1(1.9)	0(0.0)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0(0.0)	1(2.6)	0(0.0)	2(3.8)	0(0.0)
동성애가 죄인지 관심 없다	0(0.0)	2(5.3)	0(0.0)	4(7.7)	0(0.0)
총 계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표 15>의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 교회에 따른 동성애 죄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모든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의 응답자 군 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를 살펴보면, E교회(60.0%), D교회(55.8%), B교회(47.4%)는 50% 정도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A교회는 90.7%, C교회는 81.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B교회와 D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B교회 23.7%, D교회 11.5%) 관심이 없는 응답자(B교회 7.9%, D교회 11.5%)가 비동의와 무관심 응답자가 없거나 한 명인 다른 집단들에 비해 많았다.

3. 기독 청년의 연령대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연령대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표 16> 연령대별 신앙생활 충실도와 성 의식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단위: MEAN±SD

문항	연령대						$\chi^2(p)$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신앙생활 충실도	17.00±4.63	18.95±5.36	20.93±5.50	22.12±6.75	23.90±6.26	30.50±3.54	17.14** (.004)
성 의식	21.25±5.47	19.98±4.83	17.27±5.18	17.27±5.66	15.90±4.61	15.50±3.54	13.93* (.016)

연령대별 신앙생활 충실도($\chi^2=17.14$, $p=.004$)와 성 의식($\chi^2=13.93$, $p=.016$)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신앙생활 충실도가 높았고,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성 의식 수준은 낮았다.

(2) 연령대별 동성애 죄 인식

<표 17>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령별 응답

단위: 빈도(%)

항목	연령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전적으로 동의한다	4(50.0)	36(58.1)	47(73.4)	22(84.6)	8(72.7)	2(100.0)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3(37.5)	13(21.0)	9(14.1)	3(11.5)	1(9.1)	0(0.0)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0(0.0)	4(6.5)	4(6.3)	0(0.0)	0(0.0)	0(0.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0(0.0)	6(9.7)	0(0.0)	0(0.0)	2(18.2)	0(0.0)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1(12.5)	2(3.2)	0(0.0)	0(0.0)	0(0.0)	0(0.0)
동성애가 죄인지 관심 없다	0(0.0)	1(1.6)	4(6.3)	1(3.8)	0(0.0)	0(0.0)
총 계	8(100.0)	62(100.0)	64(100.0)	26(100.0)	11(100.0)	2(100.0)

위의 <표 17>에 나타난 연령에 따른 동성애 죄 인정 양상을 살펴보면, 비동의 응답자(‘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6명 중 87.5%(14명)가 20대에 속해있고, 무관심 응답자 9명 중 77.7%(7명)가 20대에 속해있다.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동의 응답자(‘전적으로 동의한다’와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의 비율이 79.1%로 가장 낮았다. 더하여 여섯 항목 중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항목을 보았을 때, 나이가 가장 적은 10대 후반(50.0%)과 20대 초반(58.1%)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4. 기독교 청년의 성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성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표 18> 성별 신앙생활 충실도와 성 의식에 대한 t-검정

단위: MEAN±SD

문항	성별		t(p)
	남자	여자	
신앙생활 충실도	20.01±5.53	20.97±6.07	-1.07 (.885)
성 의식	19.71±5.25	17.35±5.16	2.97** (.003)

신앙생활 충실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성 의식 개방성은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2.97, p=.003$).

(2) 성별 동성애 죄 인식

<표 19>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성별 응답

단위: 빈도(%)

항목	성별	
	남자	여자
전적으로 동의한다	53(66.3)	67(69.8)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12(15.0)	18(18.8)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3(3.8)	6(6.3)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5(6.3)	3(3.1)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2(2.5)	1(1.0)
동성애가 죄인지 관심 없다	5(6.3)	1(1.0)
총 계	80(100.0)	96(100.0)

<표 19>에서 제시되는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동의, 무관심 응답을 보고하였으며, 동의 응답의 비율도 더 낮은 양상이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와 주로 접하는 매체로 TV와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회를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에 불과했다. 즉, 기독 청년은 동성애 관련 정보를 교회가 아닌 미디어에 의존하여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동성애를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기독 청년은 한국 전체 인구의 동성애자 비율을 실제 비율이라 추정되는 2% 미만 보다 더 많다고(‘전체 인구의 10% 이상’ 34.75%(61명), ‘5% 정도’ 26.7%(47명)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자신이 동성애를 경험했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신앙 관련 문제(49.1%)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서의 문제(29.4%) 순으로 나타났고 에이즈 및 각종 질병의 감염(10.4%)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섯째, 기독 청년 대부분(80.7%)은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같은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73.2%)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 여섯째, 대상자 중 31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입장 변화에 교회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상자 중 5명에 한하여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화했는데 이 변화에 영향을 준 변인으로는 미디어 매체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 외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일곱째,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의 평가가 만족스러웠다. 여덟째, 기독 청년의 동성애 죄 인식에 있어 교회 차원의 적극성뿐만 아니라,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등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성적 개방성과 같은 개인 차원의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동성애 죄 인정에 대한 비동의 응답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교회 내에서의 동성애 관련 교육 및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독 청년들은 동성애 관련 내용을 교회가 아닌 주로 미디어

를 통해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독 청년들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친동성애적 정보들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때, 교회 내에서의 동성애 관련 교육 및 관심이 지금과 같이 적을 경우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동성애를 경험할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신앙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동성애의 노출 가능성이 기독 청년의 신앙 문제 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동성애와 관련한 적절한 교육 및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동성애와 관련된 기독 청년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된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연령이 어릴수록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입장에 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의 영향과 교회 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의 부재의 영향일 수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성애적 행동 및 태도가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HIV의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수행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의 60%는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10~20대에선 71.5%로 보고되었는데(문화일보, 2018) 특히 동성애 행동은 에이즈 외에도 상처와 감염으로 인해 여러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민성길, 2016). 또한, 동성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자살 생각 및 계획을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NN, 2017; Smith & Ayers, 2017). 이러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들이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 행동의 보건학적 위험성을 제기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배종명, 2016). 즉, 기독 청년들은 미디어의 영향 즉, 친동성애적인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결과 동성애 행동의 가장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년의 시기에 동성애 행동에 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낸 기독 청년들의 동성애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는 향후 기독 청년에 대한 동성애 관련 접근 및 정책에 있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순자 (2012). **기혼 여성의 기독교 신앙 활동과 가족생활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북대학교.
- 길원평 (2017). **현대 과학계는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보는가**. 기독교학문학회, 34.
- 길원평, 도명술, 이명진, 이세일, 임완기, 정병갑, 최현립 (2017). **동성애의 선천성을 옹호하는 최근 주장들에 대한 반박**. 신앙과 학문, 22(3), 7-29.
- 김병림 (2009). **청소년의 성의식의 실태와 그에 따른 상담의 실제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효진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의 영향요인 분석과 그에 따른 목회적 돌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민성길 (2016). **동성애와 관련된 정신사회적 요인들**. 기독교학문학회, 33.
- 박수진 (2003). **청소년의 팬픽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배종면 (2016). **남성동성애의 차별금지에 대한 HIV/AIDS 감염예방측면에서의 공중보건학적 해석**. 대한보건연구, 42(2), 69-74.
- 송덕영 (2017).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송혜영 (2012).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크리스천 교사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 신성욱 (201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동성애와 설교학적 대안**. 성경과 신학, 81, 339-384.
- 오성중 (2017).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신앙신학적, 영성신학적 고찰**. 성경과 신학, 81, 241-300.
- 윤성현 (2016).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요소에 따른 성의식,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이경숙 (2006).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및 성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대학원.
- 이경직 (2017). **한국교회와 동성애**. 성경과 신학, 81, 431-460.
- 이명조 (2003).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정도와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이상원, 김재영, 송인규 (2014).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 :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과 성 경험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 이영주 (2017). **신생 성인기를 위한 기독교 성교육: 통합적 모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임연미 (2004). **기독교청년의 이성교제 현황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 조연욱 (2003). **도시 교회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성윤리의 실태조사와 그 해결책: 목동 지구촌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채은정 (2010).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비교 조사 연구: 경인지역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질병관리본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연구결과보고서. 75
- 함의영 (2007).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Bailey, J. Michael, Dunne, Michael P. Martin, Nicholas G.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524-536
- Bailey, J. Michael, Vasey, L. Paul, Lisa, M. Diamond, S. Marc Breedlove, Vilain, E., & Epprecht, M. (2016). Sexual orientation, controversy, and 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7(2), 45-101.
- Heg, D. and R. van Treuren. (1998). "Female - female cooperation in polygynous oystercatchers." *Nature*, 391, 687-691.
- Lisa M. Diamond. (2009). *Sexual Fluid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Mayer, L. S, P. R. McHugh (2016).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50, 7-31.

- Niklas Langstrom, Qazi Rahman, Eva Carlstrom, Paul Lichtenstein. (2010).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s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1), 75-80.
- Paul Okami. (2014). *Psychology: Contemporary Perspectives Chapter 16 Sex, Gender, and Sexu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loderl, M. & Fartacek, R. (2005). Suicidality and associated risk factors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compared to heterosexual Austrian adul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 661-670.
- Theodore L. Caputi, Davey Smith, John W. Ayers. (2017). Suicide Risk Behaviors Among Sexual Minority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AMA*, 318(23), 2349-2351.
- Whitehead, N. E. & B. K. Whitehead. (2018). *My Genes Makes Me Do It! Homosexuality and the scientific evidence*. (5th ed). Whitehead Associates.
- 국민일보 2017.07.10.일자 “한국교회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면 혐오자의 모습이 아닌 인권옹호자로서의 모습이 돼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08021> (검색일 2018.5.09.)
- 문화일보 2018.4.23일자 “10代 에이즈 감염자 93%는 同性·兩性 성접촉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50399> (검색일 2018.5.11.)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7년 동성결혼,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37> (검색일 2018.5.8.)
- “GSM acronym better than LGBT alphabet soup”, Collegiate Times (2014.10.23.). Retrieved from http://www.collegiatetimes.com/opinion/gsm-acronym-better-than-lgbt-alphabet-soup/article_f7a325a4-5acd-11e4-bf0d-001a4bcf6878.html (2018.5.10.)
- “Stop Saying Sexual Preference: You may mean well, but it makes you sound ignorant.”, The Slate (2013.06.17.). Retrieved from <http://www.slate.com/human-interest/2018/05/when-good-allies-make-pronoun-mistakes-and-more-advice-from-dear-prudie.html> (2018.5.9.)
- “LGBQ teens face serious suicide risk, research finds”, CNN (2017.12.19.). Retrieved from <https://edition.cnn.com/2017/12/19/health/lgbq-teens-suicide-risk-study/index.html> (2018.5.10.)
- “Organisation proposes replacing the limiting term LGBT with more inclusive GSD”, Pink News (2013.1.25.). Retrieved from <https://www.pinknews.co.uk/2013/02/25/organisation-proposes-replacing-the-limiting-term-lgbt-with-more-inclusive-gsd/> (2018.5.10.)

(요약)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신성만(한동대 심리학과 교수)

이다슬·김예인(한동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최근, 한국사회와 교회에서는 동성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자 입장에 따라 찬성,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송덕영, 2017). 친동성애 그룹은 '문화'와 '성소수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오성중, 2017).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이경직, 2017),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의 측면에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다양한 성적 행동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신성욱, 2017). 실제로 2007년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송덕영, 2017), 특히 2012년부터 이후 계속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동성애에 반대를 표시하는 교회들에 대해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으며(국민일보, 2017), 일반 대중들도 교회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2017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해 물었을 때 20대에서만 찬성이 66%였고, 30대와 40대는 오히려 반대가 각각 52%, 54%로 나타나 세대 간의 인식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재영(2013)이 1,000명의 20~30대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성 의식 및 성 경험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3%, 실제로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청년도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모습을 보임을 의미하고,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정재영, 2013)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동성애를 포함하여 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신성만 교수의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에 대한 논평

송화성(백석문화대 교수, 교목)

I. 논문 설명

상담학 신성만 교수와 이다슬, 김예인 선생의 발제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는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과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논찬자도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주제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현재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 성적지향 그리고 개인의 성적 유동성을 정리하고 있다. 이어 2003년 이래 2017년까지의 선행연구 소개해서 잘 몰랐던 이들도 흐름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측정도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의 연구결과를 말한다.

첫째, 동성애를 처음 접한 매체 - TV와 인터넷 : 교회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적음.

둘째,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인식

셋째, 동성애 경험 시 걱정은 신앙>사회생활>...에이즈 등 질병문제 순

넷째, 동성애는 “죄”로 인식해 대부분 비수용적이고

다섯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변화한 경우도 있는데, 변인은 다양함을 말한다.

여섯째, 어릴수록 동성애가 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청년들이 동성애 관련 내용을 교회가 아닌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면 친동성애적 정보들에 쉽게 노출되고 기독교 청년의 신앙 문제 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교회 내에서의 동성애와 관련한 적절한 교육 및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 어릴수록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는 기독교 청년들의 동성애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향후 기독교 청년에 대한 동성애 관련 접근 및 정책에 있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논평

첫째, 세기말에 “만이” 혹은 “만사”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터부시됐었는데, 커밍아웃과 왕의 남자 이후로는 학생들의 상담이나 대화 속에서도 낯설지 않게 등장하고 이제 더 나아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때에 신성만교수의 논문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 교회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에 동감한다.

둘째, 계속적으로 교회안팎의 1차 자료가 수집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 분석을 통하여 기독교청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각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논평자가 안타까운 지점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청년들과 비기독교청년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점점 접촉점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답을 기다린다.

우고를 통해 기독교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의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을 주신 신성만 교수께 그리고 이다슬, 김예인 선선생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귀한 논문에 논평할 기회를 주신 기독교학문연구회에 감사드린다.

